

모의고사 / 수능 문제 번호 정리

#1 ~ #17 : 듣기

#18 ~ #45: 읽어나기

[2페이지]

#18 목적

#19 심경 (심경 변화)

#20 주장

[3페이지]

#21 함축 의미

#22 요지

#23 주제

#24 제목

[4페이지]

#25 도표

#26 내용 일치

#27 내용 일치

#28 내용 일치

[5페이지]

#29 어법

#30 문맥 (낱말)

#31 빈칸 (단어)

#32 빈칸 (문장)

[6페이지]

#33 빈칸 (문장)

#34 빈칸 (문장)

#35 흐름

#36 순서

[7페이지]

#37 순서

#38 삽입

#39 삽입

#40 요약

[8페이지]

#41, #42 장문

#43, #44, #45 이야기

0. 시험지의 형식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위의 데이터들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시험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일 뿐, 어느 번호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등장하는지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맹신하지 말고, 참고하도록 한다.
1.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답만 맞으면 잘 한 거다. 시험을 보는 동안에는 꼭 논리적으로 풀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답만 맞으면 잘 한 거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 공부하는 과정과 실제로 시험을 보는 동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나만의 방법을 개발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자.
2. 아래의 과정은 내가 판단하기에 이상적인 모의고사 / 수능 문제 접근 순서다. 나는 이 방법을 만든 후 약 7개월 동안 이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풀었고 수능 당일에도 마찬가지로 접근했다. 그 결과 모든 모의고사에서 1등급, 사관학교 1차 시험에서 100점, 수능에서 원점수 95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3. 핵심은 '쉬운 문제부터' 즉, 정답률이 높은 문제부터 확실하게 맞추고 다른 문제들을 건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접근 순서 또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쉬운 문제부터' 라는 간단한 원칙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물론 기본적인 어법 공부와 단어 공부를 바탕으로 구문 학습이 진행되어 어떻게 시험을 봐도 교육청 모의고사 기준 3등급 정도는 나오는 실력을 만든 후에 이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3등급까지는 열심히 어법 공부와 단어 공부를 하며 독해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된다.
4. 아래의 접근 순서는 참고만 하여 본인에게 맞도록 변형하는 것이 베스트다. 나 같은 경우는 듣기(#1 ~ #17)를 해결하며 비킬러1을 '확신을 갖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보통 모의고사에선 비킬러2를 해결할 때 듣기가 끝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수능 때도 마찬가지로 비킬러1을 해결하고 비킬러2를 해결할 때 듣기가 끝났다. 이후 비킬러2를 해결한 후에 OMR 마킹을 한 번 하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킬러를 시작했다.

<접근 순서>

비킬러1: 4페이지(#25, #26, #27, #28) -> 5페이지(#29)

비킬러2: 2페이지(#18, #19, #20), 3페이지(#22, #23, #24) -> 8페이지(#41, #42, #43, #44, #45)

킬러: 5페이지(#30, #31, #32) -> 6페이지(#35, #36) -> 7페이지(#37, #38, #39, #40)

진킬러: 5페이지(#33, #34) -> 3페이지(#21)

약간의 의미 부여를 해보자면, 비킬러1은 듣기와 함께 영어에 대한 감각을 깨우는 단계다. 수능 시간표 상으로 수학을 마친 후 점심을 먹고 예열 지문으로 조금 공부를 했다하더라도 아직 영어를 보고 수용하기에 뇌가 준비가 덜 되었다고 판단하고 난이도 낮은 지문들부터 활용함으로써 머리를 영어에 조금씩 맞춰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다.

비킬러2는 어느 정도 영어에 익숙해진 후,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내는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지문들을 대함으로써 영어를 읽어내는 데에 조금 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비킬러 구간이 끝나면 꼭 OMR 마킹을 한 번 진행하여 #21과 #30 ~

#40 그리고 듣기와 비킬러 구간에서 답을 내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듣기에서 답이 헛갈리는 게 있다면 자신을 믿고 찍는 수밖에 없고, 비킬러 구간은 킬러를 마친 후 진킬러를 들어가기 전에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 그 문제까지 포함한 약 $(10+n)$ 개의 문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이후에 건드릴 필요가 없도록 한다.

이후 킬러 파트에서 #30 ~ #40 은 집중하여 진행하되 #33, #34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정답률이 낮았던 적이 많기 때문에) #32를 마쳤다면 두 문제는 건너 뛰고 #35부터 접근한다. 이후 #40까지 해결한 후 $(3+m)$ 개의 문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이후에 건드릴 필요가 없도록 OMR 마킹을 해두고 진킬러와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포함한 $(3+m)$ 개의 문제들을 접근, 재접근한다.

나 같은 경우 진킬러+못 푼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할 때쯤이면 보통 10분 정도 시간이 남은 시점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못 푼 문제들을 조금 더 고민하여 논리적으로 확신을 갖고 답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진킬러를 버리고 못 푼 문제들부터 접근하여 진킬러를 찍었고 그렇지 않다면 진킬러부터 차분히 접근해서 답을 낸 후 못 푼 문제들을 버리거나 접근하는 식으로 시험을 마무리 했다.

+왜 #21이 혼자 진킬러에 들어가있냐, 라고 묻는다면 개인적으로 함축 의미 유형은 빈칸 유형과 풀이법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수능 때도 #21, #33, #34를 가장 마지막에 푼 기억이 있다.